

BP, 필리핀 PE 25만톤 매각 결정

필리핀 Metro Alliance가 인수 예정 ... 2004년 중반까지 협상 완료

필리핀의 Metro Alliance Holdings & Equities가 BP와 Petronas의 합작기업 BPE(Bataan Polyethylene) 지분 인수를 위해 최종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BP와 Petronas는 BPE 지분의 38%를 각각 소유하고 있으며 Sumitomo가 6.0%, 필리핀 주주들이 나머지를 소유하고 있다. 협상은 2004년 중반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나 인수조건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BP와 Petronas는 약 18개월 전 각각 지분 매각방침을 밝힌 바 있다.

BPE는 BP 프로세스 PE(Polyethylene) 25만톤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2년여의 구조조정기간 동안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다.

Metro Alliance는 2004년 말까지 BPE 플랜트를 재가동하고 중개시장을 통해 에틸렌(Ethylene) 원료를 구매할 계획이다.

Metro Alliance는 필리핀에서 여러 화학제품을 생산하고 PE의 수입과 내수시장 공급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4/07/21>